



무작정 上京, 13년째의 結實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 중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1986년)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수원 FC 이사장
-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 現)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 철 환

I. 처음에

합격기를 쓸만한 실력이나 재주도 갖지 못하고 단지 계속된 二重生活속에서 運이 좋았다는 점외엔 아무것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것이 없어 펜들기가 두렵습니다. 저보다도 몇 배 어려운 역경을 헤치고 특기할만하게 합격한 분들, 풍부한 경험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저 같은 미물에게 이러한 請託이 들어와 괴롭고 경외스럽기만 합니다.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제가 거처온 과정을 간략하고 솔직하게 기술해보겠습니다.

II. 무작정 상경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박차고 무작정 상경을 하여 용산역에 도
考試界 2013/7

착하였다. 自主的인 힘으로 都市의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경험하고파 나름대로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며, 난생 처음으로 보는 높은 빌딩과 자동차 물결은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이 조건속에서 젊음을 불태워 民族中興의 礎石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객지생활 모토를 정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誠實과 信念을 생각했다.

숙식을 모두 제공한다는 벽광고를 보고 찾아간 것이 조선일보 용산보급소였다. 새벽 4시에 신문이 나와서 배달해야 했으며, 한 방에 20여명이 잠을 자고, 밥과 맑은 콩나물국 한 그릇 외엔 반찬이란 이름조차 없었다.

처음엔 밥을 못먹고 사먹었지만, 몇일이 지난 후엔 그 밥도 부족해서 난리였다. 그해 겨울, 새벽부터 뛰느라 귀와 손에 동상이 걸려 무감각해졌다. 마치 못해 사는 人生이었다. 무엇보다도 業主의 가혹한 채찍에 견디기 어려웠으며, 새벽에 돌아보면 내 또래의 학생이 공부방에서 불을 켜고 새벽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몹시 괴로워 한강가에도 몇 번 가보고 유명한 집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결국은 나의 의지력에 호소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民族의 恨을 풀고 中興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찌 개인의 조그만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겠느냐고 자신을 위로했다.

이런 생활도 어언 2년만에 제법 익숙해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高等學校에 진학했다. 당시 야간학교로는 가장 좋다는 中東高校 夜間部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을때는, 결국 미달이었지만, 나의 人生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비록 2년이 늦었지만 처음으로 서울에서 소속감을 갖게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기에, 나중의 사법시험 합격보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전엔 학생이 되고파 시장에서 흰 교련복을 사서 입기도 했다.

Ⅲ. 中東夜間生活

이제는 시간적으로 전보다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쪼들렸다. 마침 나의 신문배달구역 근처에 淑明女大가 있어 나를 신뢰한 수위 아저씨의 주선으로 구두닦이를 시작했다. 학비가 신문배달 가지고는 부족해서 틈틈이 장사를 하기로 했다. 신문배달, 구두닦이를 병행하니 학교에 가면 잠만자고 오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校服입고 수송동을 왔다 갔다만 해도 항상 기쁨이 넘쳤고 희망이 샘솟았다. 새벽 4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었다.

이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주먹세계였다. 너무 외면하면 운신하기 어렵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면 인생과 나의 목표가 공허해지기 때문이다. 야간고등학생들은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나, 의리는 매우 강해서 단결과 협동심, 인간미가 넘쳐흘렀다.

직장인들은 학교가서 간신히 수업만 듣고, 학비마련에 여념이 없고, 직장이 없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놀기 좋아해서 공부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高三이 되면서 야간학교 졸업후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미 大學에 입학하기에는 실력도 입학금도 없어 반포기 상태였다. 그러나 당장 버스요금도 없을 때가 많고, 신문사에서 숙식을 하는 처지라 하더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구두담이를 치우고 신문배달만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어느날 밤, 달이 환히 비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는 고관대작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民族의 中興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人性的 형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에 평생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 民族教育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야간출신으로 당시 豫備考査 통과도 어려운 여건이라 꿈만 같은 바램이었다. 당시 신문사에서 주는 밥이 부족해서 동네를 돌다가 지붕위에 누룽지를 말려 놓은 것을 꺼내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 추운 겨울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방안이라고 하는 데가 얼음이 퐁퐁 얼 정도였으니까. 이때에는 나는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존경스러워 보였다. 이렇게도 어려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철저한 聖人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다. 남루한 차림에 거지 같았지만, 항상 이상을 버리지 않고 막연한 신념으로 하루 하루를 지탱해 나갔다. 중앙청 건물을 지날 때면 웬지 가슴이 울렁거렸고, 校服만 입으면 힘이 솟았다.

中東夜間卒業時에는 운 좋게도 수석의 영광을 안고서 많은 상을 받았으나, 역시 괴로웠다. 이미 군영장이 나와서 이번엔 대학에 못가면 이제 공부와는 영영 이별이기 때문이었다. 예비고사를 본 후, 서울教育大學에 원서를 내, 간신히 합격하고, RNTC에 지원해서 군문제도 일단 해결을 보았다.

IV. 教育大學 生活

敎大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고, 남자들의 경우에 자질이 푹푹하고 우

수한 애들이지만, 모두가 여건이 풍족하지 못했다. 나는 우선 이런 똑똑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잠시 뿐이었다. 특수학교 탓인지는 몰라도 학구적인 탐구분위기는 침체 상태에 있었고, 열광적인 힘도 부족함을 느껴 몸부림쳤다. 도서관서명운동도 펴보고 여러가지 투쟁도 전개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고비도 넘겼다. 80년 봄이 나의 졸업반시절이어서 여러가지로 어수선하기만 했다. 敎大를 졸업하자마자 成均館大學校 夜間法學科 2학년에 편입학을 했다. 2~3명의 정원에 행운의 영광을 안았다. 그 해에 조재연씨가 成大夜間 편입생 출신으로 司試에 수석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기는 충천했다. 입시제도의 변동으로 그때가 마지막 편입시험이었다.

V. 成均館大學校 夜間時節

敎大졸업과 동시에 서울淸德國民學校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60여명의 나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낮에는 선생님이 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제자가 되는 공존의 세월이 시작되었다. 여전히 의식주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 머리는 아주 짧게 깎고 신발은 항상 위카(군화)를 신고서 교사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했다. 하루종일 피곤한 지라, 국민학교에서 열강을 하고서, 야간대학 수업을 들으려고 앉으면 졸음이 쏟아졌다. 의욕은 강렬해서 맨 앞좌석에 앉았지만, 5분이 채 안돼서 잠을 자기 시작해, 동료학생들이 교수님 뵈 면목이 없어 불안해하는 상황을 만들곤 했다. 야간수업이 끝나고 조금의 틈이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법대도서관에 올라가지만 번번히 청소부 아저씨께서 잠을 깨서 보면 혼자만 있고, 내 책상 앞에는 향의쪽지들이 줄을 이었다. “너무 코고는 소리가 큼니다. 모두들 쳐다보고 있소.” 등의 내용이었다.

편입학이라서 학점인정이 모호했다. 일일이 확인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걸쳐서 수강신청을 하기가 일쑤였다. 物權法을 먼저 듣고 民法總則이나 法學通論 등의 학점을 따야 했으며, 시험때만 되면 30분씩 니워서 양쪽의 양해를 구한뒤 시험에 응해 간신히 학점을 땀다.

야간대학 재학동안 성적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울고만 싶었으며, 法學의 기초이론도 제대로 이해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 다니다가 졸업을 했다. 교육과정의 윤곽만을 잡은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민학교 직장생활은 항상 활기가 넘쳤으며, 특히 國史시간에는 목청높여 수업을 하면서, 정열을 쏟았

다. 백의민족도 좋고, 평화애호도 좋지만, 무력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은 상상이라도 용서할 수 없었다. 오직 주체적인 힘만이 민족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다.

VI. 一次準備

3년 동안의 교직생활과 야간대학졸업을 결산하면서 나의 한계를 느꼈고, 또 교직자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러워졌다.

졸업 후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매진해보고 싶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획기적인 전환은 불가능했다. 직장의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어울림 등은 일단 절제하고, 저녁시간만이라도 충분히 확보코자 단단히 마음먹고, 사법시험 1차를 향해 돌진했다. 무식하게 1년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군법무관 1차는 합격했으나 司試 一次는 낙방하고 말았다. 패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투자부족과 철저한 정신력의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1차에 합격한 분을 찾아서 방법론을 배우고 역대 합격기를 모아 1차 합격에 관한 부분을 모조리 읽어서 방법적인 윤곽을 모았다. 정평있는 문제집을 구해서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 새로운 공부의 범위를 넓혀갔다. 이러한 방법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요했기에 진도가 지지부진하게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문제의 성격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서 하루 저녁을 보낸 일도 있었다. 어떤 객관식 문제는 자체가 모호한 것이 있어 더욱 당황케 했다. 시험날짜가 점점 다가오며 따라 불안감도 가중되고 주위 사람들이 주야로 열심히 뛰는 모습에 기가 질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데나 앉으면 잠이 잘오는데, 1차를 앞두고는 이번엔 죽어도 합격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책상에 앉아도 잠이 잘 오지 않았으며, 밤에도 잠을 자고 싶을 때 맘대로 자지를 못했다. 당시 직장과 가장 가까운 정릉고시원에서 저녁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공부로 인하여 교육 활동에 보이지 않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큰 갈등이 생겼다. 인간이 한 일에 심취하면 최고의 가치를 그것에 두기 때문에 그 여타 일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아동들에겐, 최소한의 혼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정릉고시원에서 생활할 때 1차(27회)를 보았다. 1차시험 30일 전부터 몹시 고통이 심해 응시에 불안감이 들었으나, 필사적으로 시험을 치르

고 나니 그날 저녁부터 온몸이 뒤틀려 며칠 고생했다. 아무튼 후련하기만 했으며 결과여부를 떠나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

그러나 國史는 너무 난해하여 뒤에 모범답안 조차도 잡지사마다 달라 공통된 답은 반을 상회할 정도였다. 힘껏 해봤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발표날까지 모든 것을 잊으면서 직장일에 열중했다. 어느날 선생님들과 술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자러 고시원에 들어서는데 총무가 합격을 했다고 축하해 주었다. 정식 발표 이틀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뜻밖이라 반신반의하면서 명단을 확인하고서, 황홀했다. 그렇게도 1차벽이 두껍게 느껴졌는데 행운의 여신이 내 옆에 다가온 것이다. 고시원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놀라했다. 직장 다니면서 도시락이나 싸가고 잠만 자고 나가는 경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부만 한 사람들, 특히 고시원에서 기대를 건 사람들이 대부분 불운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1차시험전에 실전연습으로 160분씩 화장실에 안가기 위해서, 밥먹고서 물안먹는 연습까지 해가며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정력을 쏟았다고 생각했지만,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쉽게 되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Ⅶ. 二次(제28회 사법시험)準備

2차 공부를 안해봤기 때문에 빨리 운곽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성대 사마헌으로 들어가 28회 사시준비를 시작했다. 인생에서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했다. 먼저 사마헌내에 입실하는 것부터가 어려움이 많았다. 졸업생인 데다 직장에 다녀와서 저녁에만 활용하고, 또 특강 등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기에 바늘방식에 앉아 있는 기분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했다.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고, 항상 공부하는 분들 옆에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겨울까지 거기에서 보냈다.

겨울방학이 되면서 약 50일간은 긴장감과 소명의식으로 가득차 충실하게 보내었지만, 워낙 공부량이 방대했기 때문에 불과 행정법, 형소법, 민소법을 1회정독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직장을 그만두고픈 생각도 있어서 갈등을 일으켰지만,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경제력도 꾸준히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이었으므로 결국은 몇 달 안남은 동안은 병행하기로 맘먹었다. 책은 한번 본 책은 절대로 바꾸지 않고 단권 위주로 철저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면과랄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염두에 두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소 책이 부실하다 생각되어도

그것을 끝까지 보고, 정말 어려운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다른 책을 보충해서 이해해 두고 간단하게 기본서에 메모해 두는 데 그쳤다.

86년 3월이 되면서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하숙집을 독서실을 얻고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피로를 줄이는 작전을 구사했다.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여 30분정도 운동하고,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정도 독서실에서 아침 공부를 하고서 하숙집에서 아침밥을 민첩하게 먹고 도시락을 하나 들고 직장에 나갔다. 직장이 끝나자마자 독서실로 가서 공부하다가 저녁은 하숙집에 가서 직접 먹었다. 그리고 독서실에 와서 10시정도까지 하고 늦어도 11시에는 취침에 들어갔다. 마치 기계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다. 건강과 맑은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이 경험적으로 최고였기 때문이다.

되도록 꾸준히 쉬지 않고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했다. 여름이 다가오고 2차 시험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건강도 악화되어 갔다. 변비에도 가끔 화장실에 가면 선혈이 솟구쳐 기분이 나쁘고 공부할 의욕도 없어졌으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응급조치 했다. 죽어도 시험을 보고 죽자는 심정이었다. 1주일 전부터는 영양제 주사를 맞고 버티어갔다. 아는 것은 없어도 무작정상경 13년째의 結實을 마무리짓고 싶은 심정으로 모든 것을 유보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장의 선생님들께서는 헌신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며, 독서실의 실장님께서도 최대한의 편의를 봐 주셨다.

정말 人德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감사히 생각했다. 이윽고 절전의 날이 다가왔다. 東國大學校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백운동서원에서 4일동안 지내기로 하고, S·Y선배와 셋이서 함께 응시했다. 첫날과 둘째날 모두가 불안했으나 3일째의 民法과 民事訴訟法 Case문제에서 결정적으로 못 썼기 때문에, 그 이후는 쓸데없는 고생이라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푸념만 늘어놓았다. 그래도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아침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점심을 나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응시를 했다. 한 과목도 합격점수에 닿을만큼 쓴 답안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옆좌석에서 유창하게 쓰는 분들, 화장실에서도 앉아서 책을 보는 분위기에 질려서, 그 속에 나같은 사람이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시험실시 직전에게까지 끈질기게 책을 떼지 않고 보는 수험생들에게서도 짜릿한 어떤 감정을 느끼며 생존경쟁의 생생한 현장이라고 실감했다.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취하는 모습들은 경건

하기만 했고, 비록 안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평가를 받아보는데 아주 훌륭한 기회임에 틀림없었다.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줄필인지라 얼른봐서 큰 타이틀과 세목차가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했으며, 크기는 크게, 띄어쓰기를 하여 읽기 쉽도록 하고 간단명료 하게하고 핵심만을 적도록 노력했다. 펜은 만년필 2자루를 준비해 길을 잘 들여 놓고, 잘 나오는 최고품질 잉크 두병을 몇 달전부터 마련해 두었다. 답안작성 분량에 있어서는 10매양면중 9~10장을 꼭 채우려고 했다. 평소 공부할 때 이론을 이해하면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서,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좁히는 관점에서 비판 내지 立法論으로 결론을 맺어 논점을 부각시켰다. 과목과 과목 그리고 이론과 현실을 생각하면서 관련지어 이해해 놓아서 문제의 골격을 잡고 쓰는데 크게 당황을 하지 않았고 기억이 오래 되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속에서 한번 행각해보고 참조했을 뿐, 그것을 완전히 subnote하거나 첨부해서 공부양을 반대하게 할 수는 없었다. 짧은 시간밖에 없었으므로 애당초 고득점보다는 간신히 합격이나 해보자는 작전이었다.

독서는 철저한 정독이었고, 한 번 이해하면 다음부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계속해서 이해만 하려니 어떨 때는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했다.

교재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한권씩을 택해 그것을 중심으로 철저히 공부하면 별로 위험부담이 없다고 생각했다. 기타의 것은 참고서로 활용했다. 마지막 4일 동안에는 기본서는 손때가 묻은 것이라야 빨리 제목만으로도 한번 훑어 볼 수 있으니, 신중히 택해서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시간과 노력의 절약이 된다고 느꼈다. 나는 평소엔 연습은 실천처럼 실천은 연습처럼 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생활했기에 평소에도 나태함을 줄여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두루마기가 펼쳐지면 모르더라도 정신은 맑아졌다.

VIII. 과분한 結果

2차 시험 후는 수험기간중 쌓였던 강박관념이 사라진 채 후련했다. 직장에 계신 분들과 소주잔도 기울여 그동안 지은 죄를 갚으려고 노력했고, 항상 동경해온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기도 했다. 우리 제자들과 편안한 맘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니 무엇보다도 좋았다. 그러던 중 2차 합격 발표 이틀전 오후에는 심히 초조했다. 오후 3시 30분 정도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객관적인 귀결

로 낙방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후에 전화왔다는 방송이 나왔다. 조금 얼떨떨한 기분으로 급히 내려갔는데 K 선배님으로부터, 수험번호를 확인받고 합격을 축하받았다. 순간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헌신적으로 저를 뒷바라지 해 주신 K 선배님과 눈물어린 포옹을 하고 말했다.

2차 합격은 했으나 내 실력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위 성적으로 3차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 심히 불안했다. 그래서 침착하게 mam 먹고 3차가 확정될 때까지는 전교선생님들께 비밀에 부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직원조 예시 성대조교로부터 전화가 와서 눈치도 없이 수화자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분이 전체적으로 긴급발표를 하여, 모두가 우뢰같은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그날 저녁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평소에 오직 교육에 전념하시면서 보이지 않은 그늘에서 민족의 새싹들을 양육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外道를 꿈꾸는 내게 인간적으로 대해 주실 때, 내자신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3차 발표까지의 기간이 심히 불안하기만 했다. 책을 들고 基本三法과 訴訟法 정도라도 일독하고 임하려고 독서실에 다시 나갔으나, 역시 새롭기만 하고 책이 손에 잘 잡히질 않았으며, 특별히 3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보에 더욱 공부가 안되었다.

3차 시험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치러졌는데 하루는 면접이고 하루는 단체 토론의 형식이었다. 면접에서 담당위원님께서 학과에 관해선 별로 말씀 안하시고 신상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立志傳의 人物이라면서 과찬해 주셔서 희망을 걸기도 했다. 마지막 날은 성적을 열람할 수 있어 합격여부가 거의 판가름났다. 나의 성적은 전과목이 고르게 나왔으며 중간정도였다.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합격에 대한 어떤 결과나 대가보다도 성취감을 맛보았다. 13년전 용산역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객지로 불효자식이 나간 뒤 끼니 때만 되면 노심초사 눈물을 흘리신 부모님께 참회하면서, 그동안 사랑하는 弟子들에게 보다 정을 듬뿍 주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직장에서 항상 저를 신뢰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어주신 은사님들, 그리고 항상 情報와 공부방법론을 제시하고 지도해 주신 法大同窓諸位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崔, 孫, 李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IX. 글을 맺으며

眞正 重要的 것은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人間本質을 가지고, 어느 한 制度的 評價의 結果에 따라서 세상사람들의 인식은 天上天下로 동요함을 볼 때, 기왕 시작했으면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광로 속의 불덩이처럼 활활 타오르는 信念을 갖고, 피·땀·눈물 그리고 自身과의 꾸준한 투쟁속에서 지금도 고시원, 산사, 도서관,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실 同途諸賢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